



뉴스 속보

Le Monde가 라이온브리지의 지원을 받아 영문판 뉴스 속보를 전달하고 글로벌 구독자 기반을 확장한 사례

번역사 19명

월 30만 단어 이상

최대 6시간 이내 납품

Le Monde 소개

78년 전 창간 이래 프랑스 언론의 상징이 된 Le Monde는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신뢰받는 중앙지로서 월구독자 수가 70만 명에 달하고 디지털 구독자 수는 45만 명을 넘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Le Monde는 *Le Monde Afrique*를 통해 프랑스어권 국가로 확장한 것과 더불어, 이제 영어권 독자들을 대상으로 *Le Monde* 영문판을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뉴스는 전 세계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기관들은 자국의 경계를 넘어 점점 더 넓은 지역에서 기삿거리와 구독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뉴스와 전 세계 독자의 관련성이 더 깊어짐에 따라, 여러 언어로 뉴스를 전달하는 일이 독자는 물론 언론 자체에서도 중요해졌습니다.

글로벌 뉴스 네트워크에서 번역은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뉴스 기사는 독자들의 실제 삶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여기에는 어떠한 오류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번역된 뉴스는 최고의 품질을 보장해야 하며 원래 기사의 뉘앙스를 완벽히 포착해야 합니다. 또한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사실을 명확하고 중립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진실성에 대한 약속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미 포화 상태인 언론 환경에서 틈새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거의 실시간으로 기사를 번역해서 게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뉴스 네트워크는 적시에 속보를 전달하고 스토리 전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과제, 즉 속도, 품질, 진실성은 달성하기 너무 복잡하므로 많은 언론 조직이 외부 업체에 번역을 맡기는 것을 꺼리며, 대신에 기사를 쓴 기자에게 직접 기사를 번역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사내 번역은 품질이

우수하고 신뢰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엄청난 기회 비용이 수반됩니다. 먼저, 조직에서 번역할 수 있는 언어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기자들이 다음 특종을 준비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뉴스 매체에서 요구하는 콘텐츠의 양이 점차 늘어남에 따라 이미 한계에 다다른 사내 팀에 더 큰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사내 번역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대신 라이온브리지(Lionbridge)와 같이 번역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는 언어 서비스 제공업체(LSP)와 협업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LSP는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할 수 있는 기술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므로 사람과 기계의 장점을 결합하여 원본의 뉘앙스를 반영하는 고품질 콘텐츠를 작성하고 속도와 품질, 진실성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또한 LSP는 글로벌 번역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속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보도 시간의 손실 없이 결과물을 납품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LSP는 미디어 기관이 권력 앞에서 진실을 외칠 수 있는 힘의 확고한 기반, 즉 건전한 글로벌 구독자 기반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해결 과제

최근 프랑스의 선도적인 뉴스 기관인 Le Monde에서 창간한 *Le Monde* 영문판은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Le Monde는 구독자 백만 명 확보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 중심으로 Le Monde 영문판 서비스를 시작해 영어권 독자들에게 프랑스와 유럽에서 국제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Le Monde는 사내 번역을 시험해 본 결과, 기자들의 부담을 덜고 새로운 웹사이트에서 24시간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외부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Le Monde는 라이온브리지에 문의해 속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동화 솔루션을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은 저널리즘에 대한 Le Monde의 고유한 접근 방식을 유지하면서 가짜 뉴스에 대항해 프랑스 공식 신문으로서의 명성을 보호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위험 부담이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Le Monde* 영문판은 2022년 프랑스 대선이 절정에 달한 시점에 맞물려 공개되었습니다. Le Monde에서 향후 다루게 될 영문 보도도 이처럼 흥미를 돋우며 신속히 전개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라이온브리지는 복잡한 대량 콘텐츠를 즉시 처리하여 프랑스 정치의 권위에 걸맞은 품질 표준으로 번역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솔루션

라이온브리지는 전문 번역사의 지식과 최신 기계 번역(MT) 기술을 결합해 확장 가능한 자동화 솔루션을 구축함으로써 Le Monde의 복잡하게 조판된 콘텐츠를 번역했습니다.

Lionbridge La'nguage Cloud™에 통합된 이 시스템은 신규 콘텐츠를 Le Monde의 기술 스택에서 라이온브리지의 기계 번역 플랫폼으로 직접 자동 라우팅합니다. 그러면 Smart MT™를 사용해 콘텐츠를 즉시 번역한 후 전문 번역사로 구성된 글로벌팀에 전송해 면밀한 검토를 거칩니다. 번역 평가 결과 품질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시스템은 완성된 번역본을 Le Monde 기자에게 전송해 최종 승인을 받습니다.

Le Monde와 라이온브리지 사내팀에서 받은 모든 피드백은 기계 번역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매번 납품할 때마다 프랑스어에서 영어로의 번역이 더 자연스러워질 뿐만 아니라 기사가 Le Monde의 고유한 스타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번역된 모든 콘텐츠 중 97%가 양측의 엄격한 품질 검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라이온브리지 시스템의 잠재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Lionbridge La'nguage Cloud™를 활용함으로써 확장성을 얻은 이 시스템에서는 기사를 납품할 때마다 전달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품질도 높아집니다. 이 시스템은 국제 번역팀의 전문성을 통합함으로써 향후 24시간 뉴스 송달에 따른 잠재적 충격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결과

Le Monde의 선거 뉴스 보도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선거 주말 동안 라이온브리지는 Le Monde의 모든 콘텐츠를 프랑스어로 게시된 지 2시간 이내에 모두 번역함으로써 *Le Monde* 영문판이 엘리제궁의 선거에 대한 최신 뉴스를 포괄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Le Monde는 이 주말 동안 수천 명의 신규 구독자를 얻음으로써 2025년까지 15만 명의 영어권 독자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향해 큰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라이온브리지의 번역 시스템은 또한 영문 미디어로서 *Le Monde* 영문판의 지위를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동화 솔루션으로는 속보에서 탐사 저널리즘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사를 통틀어 매월 30만 개 이상의 단어를 번역합니다. 또한 Le Monde에서 가장 복잡한 콘텐츠도 6시간 이내에 납품이 완료됩니다. 이제 Le Monde 기자는 14분 이내에 각 기사를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뉴스 발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Le Monde는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영문 기사를 하루 60건까지 늘리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라이온브리지의 번역 솔루션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LIONBRIDGE.COM](https://www.lionbridge.com)